

순전히 알레고리적이지 않은 바울의 알레고리: 갈라디아서 4장 27에 사용된 바울의 이사야 54장 1절 재고(再考)

임만세
(에딘버러 Ph.D.)

[초록]

‘하갈과 사라 알레고리’(allegory)로 잘 알려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은 바울 연구자들 사이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는 본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인용된 이사야 54장 1절은 많은 주석가들에게 해석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해석자들은 바울의 사 54장 1절 인용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알레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해석적 열쇠로 기능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사 54장 1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하갈-사라 알레고리’가 갈라디아서 문맥 내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탐구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바울의 알레고리가 순전히 알레고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이며 동시에 묵시론적(apocalyptic)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종말론적인 신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바울, 알레고리(allegory), 두 언약(δύο διαθηκαι), 갈 4:21-31, 사 54:1

1. 시작하는 말

바울의 ‘하갈과 사라 알레고리’(allegory)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에게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는 본문으로 평가된다.¹⁾ 특히, 갈 4장

1) 학자들 간에 본문의 단락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5장 1절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5장 1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는 마르틴, 바크만, 드 보어, 윌리츠를 따르지 않고(J. Louis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A [New York: Doubleday, 1997]; Michael Bachmann, “Die andere Frau: Synchrone und diachrone Beobachtungen zu Gal 4,21-5,1,” *Judaica* 54 [1998]: 144-64; Martinus C.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NTS* 50 [2004]: 370-89; Joel Willitts, “Isa 54,1 in Gal 4,24b-27: Reading Genesis in Light of Isaiah,” *ZNW* 96 [2005]: 188-210), 5장 1절부터 직접적인 권면(paranesis)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여, 버튼, 베츠, 롱에네커, 잡스, 디마테이 등을 따라 3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한다(Ernest de Witt Bur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ICC [Edinburgh: T&T Clark, 1921]; Hans D. Betz, *Galatians: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Churches in Galatia*,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WBC 41 [Dallas: Word, 1990]; Karen H. Jobes, “Jerusalem, Our Mother: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WTJ* 55 (1993): 299-320; Steven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Gal 4.21-31] in Light of First Century Hellenistic Rhetoric and Jewish Hermeneutics,” *NTS* 52 [2006]: 102-22).

27 절에 인용된 이사야 54 장 1 절은 많은 주석가들에게 해석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6 장의 ‘사라-하갈 내려티브’인데, 불쑥 인용된 사 54 장 1 절이 다소 문맥에 맞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렛(C. K. Barrett)은 이 인용을 두고 자의적인(arbitrary) 인용이라고 보았고,²⁾ 헤이즈(Richard Hays)는 그 해석의 어려움을 일컬어 ‘해석학적 주짓수’(hermeneutical jujitsu)라고 표현했다.³⁾ 또한 이영미는 바울의 사 54 장 1 절 해석이 “원 본문(전승)에 충실하고자 하는 주석적 해석이라기보다는 본문을 상황적 필요에 따라 해석자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변형시키는 독자중심적 성서해석”이라고 보았다.⁴⁾ 그러나 최근 많은 해석자들은 바울의 사 54 장 1 절 인용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알레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⁵⁾

본 연구는 바울의 ‘하갈-사라 알레고리’가 담긴 갈 4 장 21-31 절을 바울이 인용한 사 54 장 1 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바울이 말한 알레고리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사 54 장 1 절과 그 문맥을 탐구한 후, 마지막으로 두 아들, 두 언약, 두 여인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바울이 말하는 알레고리란?

- 2) C. K. Barrett, “The Allegory of Abraham, Sarah, and Hagar in the Argument of Galatians,” in *Essays on Pau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167.
- 3) Richard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9), 112.
- 4) 이영미, “바울의 구약전승의 알레고리화()와 상황적 적용: 갈라디아서 4:21-31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 (2014), 126.
- 5) 본문과 관련된 최근에 나온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F. F. Bruce, “Abraham Had Two Sons: A Study in Pauline Hermeneutics,” in *New Testament Studies: Essays in Honor of Ray Summers in His Sixty-Fifth Year*, eds., Huber L Drumwright and Curtis Vaughan (Waco, TX: Baylor University, 1975), 71-84; Barrett, “The Allegory of Abraham, Sarah, and Hagar”; Mary Callaway, *Sing, O Barren One: A Study in Comparative Midrash*, SBLDS 91 (Atlanta: Scholars, 1986), 107-14; Charles H. Cosgrove, “The Law has Given Sarah No Children (Gal. 4:21-30),” *NovT* 29 (1987): 219-35; Michael G. Steinhauser, “Gal 4.25a: Evidence of Targumic Tradition in Gal 4.21-31?,” *Biblica* 70 (1989): 234-40; Hays, *Echoes of the Scripture*, 105-21; Jobes, “Jerusalem, Our Mother”; Kamila Abrahamova Blessing, “The Background of the Barren Woman Motif in Galatians 4:27” (PhD diss., Duke University, 1996); J. Louis Martyn, “The Covenants of Hagar and Sarah: Two Covenants and Two Gentile Missions,” in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1997), 191-208; Susan M. Elliott, “Choose Your Mother, Choose Your Master: Galatians 4:21-5:1 in the Shadow of the Anatolian Mother of the Gods,” *JBL* 118 (1999): 661-83; Robert L. Brawley, “Con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the Hendiadic Relationship of Promise and Law in Galatians,” *ZNW* 93 (2002): 99-119;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Willitts, “Isa 54.1 in Gal 4.24b-27”; 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Susan G. Eastman,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JSNT* 28 (2006): 309-36; Mathew S. Harmon, *She Must and Shall Go Free*, BZNW 168 (New York: de Gruyter, 2010), 173-85; David I. Starling, “The Children of the Barren Woman: Galatians 4:27 and the Hermeneutics of Justification,” *JSPL* 3 (2013): 93-110; Matthew Y. Emerson, “Arbitrary Allegory, Typical Typology, or Intertextual Interpretation?” *BTB* 43 (2013): 14-22; Brendan Byrne, “Jerusalems Above and Below: A Critique of J. L. Martyn’s Interpretation of the Hagar-Sarah Allegory in Gal 4.21-5.1,” *NTS* 60 (2014): 215-31; Bradley R. Trick, *Abrahamic Descent, Testamentary Adoption, and the Law in Galatians: Differentiating Abraham’s Sons, Seed, and Children of Promise*, NovTSup 169 (Leiden: Brill, 2016), 253-330; Debbie Hunn, “The Hagar-Sarah Allegory: Two Covenants, Two Destinies,” *Biblica* 100 (2019): 117-34; Yael Fisch, *Written for Us: Paul’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the History of Midrash*, JSJSup 202 (Leiden: Brill, 2022), 78-130.

바울이 말한 알레고리란 무엇일까? 갈 4장 21-31 절의 단락에 나온 ‘하갈-사라’ 비유가 ‘알레고리’로 불린 이유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24 절에 사용된 단어 ἀλληγορούμενα 때문이다. 헬라어 동사 ἀλληγορέω는 ‘말하다’라는 뜻의 ἀγορεύω와 ‘다른 것’을 뜻하는 ἄλλος 의 합성어로서 ‘다른 것으로 말하다’, ‘비유적으로 말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⁶⁾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용어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 피쉬(Yael Fisch)가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가 순전히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비유의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알레고리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는 이름 아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두드러진 해석 기법을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⁷⁾

초기 교부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해석자들은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예를 들어, 오리겐(Origen)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울의 갈 4장 24 절의 용례를 인용하였다.⁸⁾ 반면, 크리스소툼(Chrysostom)과 같은 안디옥 학파는 이에 반대하며,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알레고리’가 아니며, ‘예표’(τύποι)이고, 예표(type)를 비유(allegory)라는 단어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⁹⁾ 이렇게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후대의 해석학적 논쟁은 비유와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통찰을 제공하긴 하지만,¹⁰⁾ 그로부터 바울이 사용한 알레고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바울이 말한 ‘알레고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최근 학자들이 제시한 고대 그리스-로마 및 유대 수사학에 집중하고자 한다. 알레고리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학기법이다. 데이비스(Anne Davis)는 바울의 알레고리가 ‘네러티브 알레고리의 문학적 장르’(the literary genre of narrative allegory)가 아니라 ‘그리스 수사학’(Greek rhetoric)의 한 방법이며 소위 ‘모형/예표론’(typology)이라 불리는 해석의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본다.¹¹⁾ 그녀는 1세기 라틴 수사학자 퀸틸리안(Quintilian)의 수사기법 중 세 번째 알레고리 기법, 즉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정반대의 다른 어떤 것과 일치시키는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울이 사용한 수사기법과 같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울은 본문에 예표(τύπος)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분명 로마서 5장 14 절에서 직접적으로 ‘예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사용하긴 했다. 그러나 갈 4장 21-31 절에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바울이 두 여인, 즉 하갈과 사를 두 언약으로 지칭했는데, 이를 예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표론은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로 하지만, 두 여인과 두 언약은 다른 범주 간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피쉬는 말한다. “예표론은 언어의 층위

6) Fisch, *Written for Us*, 81.

7) Fisch, *Written for Us*, 81.

8) Origen, *Contra Cels* IV.43-44; *De prin* IV.2.6; *Philocalia* I.13; *fr Comm ad 1 Cor* 35.28;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2.

9) John Chrysostom, *Comm Epist ad Gal* IV.710 (PG. 61.662);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3.

10) 비유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에 대한 비평과 가능성을 재고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 (2014), 5-40를 참조하라.

11) Anne Davis, “Allegorically Speaking in Galatians 4:21-5:1,” *BBR* 14.2 (2004): 161-74.

12) 데이비스는 이와 관련해 맥퀸(John MacQueen)을 인용한다. Davis, “Allegorically Speaking,” 165와 해당 페이지 각주 12번에 인용된 John MacQueen, *Allegory, The Critical Idiom* 14 (London: Methuen, 1970), 49.

(register)들 사이를 이동하지 않는다.”¹³⁾ 따라서 이는 단순한 유비(analogy)라기보다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에 해당하기에, 예표라기 보다 알레고리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낫다.¹⁴⁾

좀 더 광범위한 연구로서, 디마테이(Steven DiMattei)는 1세기 전후의 헬레니즘 수사학 논문들(Hellenistic rhetorical treatises)에 주목한다.¹⁵⁾ 데메트리우스(Demetrius), 스트라보(Strabo), 헤라클리투스(Heraclitus), 요세푸스(Josephus), 알렉산드리아의 필론(Philo of Alexandria), 플루타르크(Plutarch) 등의 글들이다.¹⁶⁾ 디마테이는 위의 고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알레고리로 말하다’(ἀλλήγορεύω)라는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알레고리적으로 말한다(to speak allegorically)는 것은 곧 수사적 전환(trope)인 알레고리아(allegoria)를 통해 말하거나 선언한다(ἀγορεύω)는 의미이다.”¹⁷⁾ 디마테이의 예를 인용하자면, 그리스의 철학자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저작 『표현에 관하여』에서, ‘늙은 여인’(γραιῶς)을 ‘약하고 망해가는 도시’로 빗대어 사용한다(*On Style* 285).¹⁸⁾ 비슷한 예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모세가 알레고리적으로 ‘지성’은 ‘하늘’에(*Leg.* 2.10), ‘몸’은 ‘장막’에 빗대었다 말한다.¹⁹⁾ 쉽게 말해, ‘이것’을 ‘저것’(this-for-that)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수사법이다. 이는 소위 대유법(代喩法, metonymy)과 흡사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마테이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拉到 대한 알레고리도 역사적 예표(type)에 근거하지 않고, 이미 이사야 54장 1절 안에 존재하는 언어적·주제적 암시들에 근거한다.”²⁰⁾ 디마테이에 따르면, 바울은 창 16-17장에 등장하는 하갈과 사 را을 빗대어 두 언약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 것이다.²¹⁾

한편, 피쉬(Yael Fisch)는 디마테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고대 유대수사학과 의 비교를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알레고리가 *도르셰이 라슈모트(Dorshei Rashumot)*의 알레고리와 유사함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도르셰이 라슈모트*는 랍비 교사들의 무리들 중 율법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²²⁾ 그러나 보야린(Daniel Boyarin)은 이들이 알레고리주의자(Allegorists)들이 아니라, 본문 속의 수수께끼같고 불명확한 본문들을 해결하는 데 능숙한 해석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²³⁾ 이에 동의하며, 피쉬는 그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몇 가지를 소개한다. 여러 예 중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25-26절에 대한 해석이다.²⁴⁾ ‘마라’의 쓴

13) Fisch, *Written for Us*, 90.

14) Fisch, *Written for Us*, 90.

15)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4-109.

16) Demetrius, *On Style* 151; 285; Strabo, *Geog.* 1.2.7; Heraclitus, *Homeric Allegories* 1.1; 5.5, 10, 12; 6.2; 13.5; 15.2; 22.1; 23.2; 24.2, 5, 8; 29.4; 41.5, 12; 42.1; 43.1; 59.1; 60.1; 61.3; 68.2; 69.12; 70.1, 11, 13; Josephus, *A.J.* 1.24; Philo, *Leg.* 2.5, 10; 3.4, 60, 238; *Cher.* 25; *Post.* 51; *Agr.* 27; 157; *Ebr.* 99; *Migr.* 131; 205; *Mut.* 67; *Somn.* 1.67; 2.31, 207; *Abr.* 99; *Ios.* 28; *Decal.* 101; *Spec.* 1.269; 2.29; *Praem.* 125; 159; *Contempl.* 28; 29; *Hypoth.* 197; Plutarch, *Moralia* 362b; 363d; 996b;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6에서 재인용.

17) Fisch, *Written for Us*, 90.

18)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8.

19)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8.

20)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6.

21)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09.

22) Jacob Z. Lauterbach, “The Ancient Jewish Allegorists in Talmud and Midrash-Part 1,” *JQR* 1.3 (1911): 291-333; Davis, “Allegorically Speaking,” 163.

23) Daniel Boyarin, “Dorshei Rashumot Amru,” *Beer-Sheva* 3 (1988): 30-31.

24) Fisch, *Written for Us*, 104-106.

물 사건이 25 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다음 절인 26 절에는 갑자기 율법준수에 대한 명령이 등장한다. 다소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는데, 이를 두고 *도르쉐이 라슈모트*는 두 가지 알레고리적 해석을 제공한다. 한 군데에서는 ‘물’을 ‘율법/토라’로, 다른 곳에서는 ‘나무’를 ‘율법/토라’로 (Mek. RI Vayassa 3) 해석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성경해석에 있다. 먼저, 물을 율법/토라로 해석한 이유는 이사야 55 장 1 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 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 구절들인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사 55:2)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사 55:3)가 그 물이 ‘율법/토라’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Mek. RI Vayassa 1). 또한 나무를 율법/토라로 해석한 이유는 잠언 3 장 18 절에 지혜와 율법을 생명의 나무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신명기 미드라쉬에 보면, 신명기 18 장 3 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받을 몫인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내장)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나온다(Sifre Deut. §165).²⁵⁾ 제사장이 받은 이 부위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르쉐이 라슈모트*는 민수기 25 장 7-8 절과 시편 106 편 30 절에 기록된 비느하스의 행위 속에 나타난 각 부위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한다. 즉, ‘앞다리’는 창을 든 비느하스의 ‘손’을(민 25:7), ‘두 볼’은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보한 ‘기도’를(시 106:30), ‘위’는 창으로 꿰뚫은 여인의 ‘배’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도르쉐이 라슈모트*에 따르면, ‘앞다리’, ‘두 볼’, ‘위’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의 상징들(symbols)인 것이다.²⁶⁾ 피쉬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르쉐이 라슈모트*가 상호본문(intertext)을 통해 본문해석의 난해함을 푸는 해석 작업이 바울의 알레고리와 가깝다고 본 것이다.²⁷⁾ 그러나 바울과 *도르쉐이 라슈모트*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어떤 구약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알레고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피쉬는 바울의 사라-하갈 알레고리를 필론의 알레고리나 쿨란의 알레고리와 유사하나, 형식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랍비적인 미드라쉬 알레고리와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규정한다.²⁸⁾

바울의 알레고리가 디마테이가 말한 수사적 전환을 통한 알레고리에 가까운지, 아니면 피쉬가 말한 랍비식-미드라쉬 알레고리에 더 가까운지는 좀 더 자세한 연구와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알레고리는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빗대어, 즉 알레고리적으로 말한 것 뿐이지, 바울 이후 풍유적 해석으로 불리는 성경 해석학의 한 방법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피쉬는 말한다: “알레고리는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종말론적 사상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²⁹⁾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디마테이와 피쉬가 말한 의미로 사라-하갈의 내러티브를 알레고리로 사용했다면, 바울이 제시하고 정립하고자 한 갈라디아 공동체에 실현된 종말론적 사상은 무엇일까? 만일 사 54 장 1 절이 사라-하갈 알레고리를 이해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면, 바울은 사 54 장 1 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사 54 장 1 절과 그 문맥을 살펴보자.

3. 바울의 이사야 54 장 1 절 사용과 그 문맥

25) Fisch, *Written for Us*, 109-10.

26) Fisch, *Written for Us*, 110.

27) Fisch, *Written for Us*, 126. 이러한 주장은 이미 롱에네커가 바울의 알레고리를 랍비 전통의 미드라쉬와 페셰르 안에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 N.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18-30를 보라.

28) Fisch, *Written for Us*, 127-28.

29) Fisch, *Written for Us*, 128.

바울은 왜 이사야서 54 장 1 절을 인용했을까?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사 54 장 1 절을 인용한 것은 팔레스타인 3 년 주기(triennial)로 읽는 성경읽기 순환인 *하프타라(haftarah)* 전통과 미도트(*Middot*)의 한 해석 방법인 *게제라 샤와(gezerah shawa)*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³⁰⁾ 그러나 1 세기 당시에 *하프타라*의 예전적 낭독 관습이 존재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기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하프타라*의 한 방식으로 본문을 읽었다고 보지는 않는다.³¹⁾ 그러나 그것과 상관 없이, 최근 많은 학자들은 마치 *하프타라*와 *게제라 샤와*의 방식처럼, 바울의 사 54 장 1 절을 이사야의 넓은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인용 및 갈 4 장 21-31 절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잡스(Karen Jobes)와 헤이즈(Richard Hays)는 바울의 사 54 장 1 절 인용은 랍비식 *게제라 샤와*와 비슷한 문학의 기법 중 하나인 ‘메타렙시스’(metalepsis)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²⁾ 즉, 바울이 사 54 장 1 절을 인용한 목적이 단순히 증거구절(prooftext)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 54 장 1 절의 근접 문맥 뿐만 아니라 이사야 후반부(40-55 장 혹은 66 장)의 넓은 문맥으로 이끄는 지시(pointer)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이방인 중심의 갈라디아 공동체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적 방법이 무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한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사야서에서의 예언의 성취를 마음에 두고 사 54 장 1 절을 인용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³⁴⁾ 하르몬(Matthew Harmon)이 자세히 분석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4 장과 이사야 51-54 장은 공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우리는 사 54 장 1 절과 그 문맥이 어떤 주제적·언어적 배경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가. 이사야 54 장 1 절의 ‘불임의 여인’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사 54 장 1 절을 살펴보면, 사 54 장 1 절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στειρα ἡ οὐ ἴκτουσα)과 ‘산고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ἡ οὐκ ὠδίνουσα)은 ‘시온’/‘예루살렘’의 의인화(personification)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잡스에 따르면, “이

30) Mary Callaway, *Sing, O Barren One: A Study in Comparative Midrash*, SBLDS 91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11;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86-87; Willitts, “Isa 54.1 in Gal 4.24b-27,” 202n40;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14; Byrne, “Jerusalems Above and Below,” 230; Fisch, *Written for Us*, 99-100. *게제라 샤와*는 힐렐의 일곱 가지 해석 원리인 미도트 중 하나로, 서로 다른 본문에서 유사한 단어와 표현이 등장할 때, 한 본문에서의 의미를 다른 본문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식이다. (Michael Chernick, “Internal Restraints on Gezerah Shawah’s Application,” *JQR* 80.3 [1990]: 253-82; David H. Wenkel, “Gezerah Shawah as Analogy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TB* 37.2 [2007]: 62-68; François-Xavier Licari, *An Introduction to Jewish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장).

31) 이에 반하여, 사도행전 13장 13-15절과 누가복음 4장 16-21절을 분석하며, 성전이 파괴되기 전부터 토라와 예언서 낭독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바에 관련해서는 쉬프만(Lawrence H. Schiffman)의 “The Early History of Public Reading of the Torah,” in *Jews, Christians, and Polytheists in the Ancient Synagogue*, ed. Steven Fine (New York: Routledge, 1999), 44-56를 참조하라.

32) Hays, *Echoes of Scripture*, 105-21, 120; Jobes, “Jerusalem, Our Mother,” 305-306.

33) 예를 들어, Fisch, *Written for Us*, 98.

34)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87n68, n72.

35) 하르몬은 갈 3장 6-9절에 반향된 사 51장 1-8절과 사 4장 27절에 인용된 사 54장 1절이 마치 양끝 칸막이(bookends)로 기능하며, 사 51-54장이 갈 3-4장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Harmon, *She Must and Shall Go Free*, 123-203).

스라엘 백성을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표현은 구약, 특히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³⁶⁾ 즉, 이사야 문맥 안에서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성/도시는 의인화된 이스라엘을 일컫는다.³⁷⁾ 실제로, 이사야 54 장 내에서, 복된 여인(사 54:1-10)과 재건된 성읍(사 54:11-17)이 병렬관계(juxtaposition)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임의 여인’이 곧 ‘황폐한 성읍 시온/예루살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사야 62 장 4 절은 ‘황폐한 여인’(desolate woman)이 곧 ‘시온/예루살렘’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이다. “다시는 네가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아니하며, 네 땅이 다시는 ‘황폐한 자(חֲרָבָה)’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라(사 62:4)” 또한 차일즈(Brevard S. Childs)가 잘 지적했듯이, “이 장[54 장]에서 시온을 버림받은 아내로 묘사하는 문학적 기법은 이사야 49 장 14-26 절과 51 장 17 절-52 장 12 절에서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⁸⁾ 따라서 이사야서 전체 맥락에서 ‘불임의 여인’(barren woman)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임이 분명하다. 즉, “황폐함(desolate), 불임(barren), 버려짐(deserted)”의 이미지는 모두 ‘포로기 동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나. 이사야 내의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학자들은 사 54 장 1 절의 ‘불임의 여인’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사라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³⁹⁾ 이사야서 전체에서 ‘사라’라는 이름은 딱 한 차례 사용되는데, 사 51 장 1-3 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다.

¹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²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³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1-3, 개역개정).

위의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한 인물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시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복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전제로 한다. 2-3 절에 보면, 이사야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황폐했으나 언약하신 바를 이루셔서 복을 주어 자녀가 많게 하신 것처럼, 황폐한 시온을 에덴과 같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 기쁨(εὐφροσύνην)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가 넘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 54 장 1 절의 ‘노래하다’(εὐφράνθητι)를 연상시킨다. 이사야는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다.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초자연적

36) Jobes, “Jerusalem, Our Mother,” 308.

37) Callaway, *Sing, O Barren One*, 63-65.

38) Brevard S. Child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426.

39) Hays, *Echoes of Scriptures*, 118-19; Jobes, “Jerusalem, Our Mother,” 309;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88;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17.

인 방식의 잉태와 출산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다. 이사야는 마치 그 옛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임인 시온에게 해방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사야는 창세기의 사라의 ‘불임’(barrenness)이라는 주제를 이스라엘의 ‘불임’이라는 주제로 전환시켰다.⁴⁰⁾ 캘러웨이의 말을 빌리면, “한 사람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백성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로 바꾼 것이다.⁴¹⁾ 코스그로브(Charles Cosgrove)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사야의 맥락에서의 사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불임으로 묘사된다고 말한다.”⁴²⁾ 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의 사라-하갈 이야기는 이사야의 사라/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 확장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다. 고난 받는 종의 대속적 사역

이사야서 내에서 아브라함-사라 내러티브는 사 51 장 1-3 절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 54 장 1 절을 사용한 것일까? 가능하며 그럴듯한 하나의 답변은 바로 앞에 기록된 ‘고난 받는 종’(the Suffering Servant)의 사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차일즈는 ‘종의 노래들’이 사 54 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⁴³⁾ 오스왈트(John Oswalt) 역시 종의 사역과 사 54 장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사야 49 장 13 절은 특히 54 장 1-10 절과 수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구절[사 54:1]은 종(49:1-12)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⁴⁴⁾ 모티어(J. Alec Motyer)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 54 장이 40 장 1 절에서 시작된 장대한 전체 구속사라는 파노라마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52 장 13 절부터 53 장 12 절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분명하다. 그의 구원 사역 안에서 종(Servant)은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죄를 제거하고, 의를 세우며, 한 가족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은 순수하고 단순한 응답에 열려 있다. 즉, 다른 누군가 이미 성취한 일에 대해 노래하는 것(54:1), 그리고 다른 누군가 이미 값을 치른 만찬을 누리는 것(55:1)이다.”⁴⁵⁾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택하시고 의로 부르셨다. 이는 그 종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되게 하시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사 42:6; 49:6).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종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사 53:10). 그러한 대속의 사역 이후, 그는 자기와 같은 새로운 씨(σπέρμα)를 보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시 짊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δικαιῶσαι δίκαιον) 할 것이다(사 53:11).

라. 이방 민족의 참여

40) Jobes, “Jerusalem, Our Mother,” 307.

41) Callaway, *Sing, O Barren One*, 63.

42) Cosgrove, “The Law has Given Sarah No Children,” 231.

43) Childs, *Isaiah*, 426.

44)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414.

45)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6), 444.

고난 받는 종의 대속적 사역을 통한 성취될 종말론적인 회복은 이방을 유업으로 얻는 일과 관련이 있다. 사 54 장 3 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tau\acute{o}$ σπέρμα σου ἔθνη κληρονομήσει)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이는 ‘불임의 여인’인 ‘새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까지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다. 마치 창 12 장 3 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의 최종적 성취처럼 말이다. 이사야의 후반부에는 이방 민족들이 종말론적인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사 42:6; 49:6; 56:6-8; 66:18-21).⁴⁶⁾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4 장에서 사 49 장의 수많은 암시들(allusions)을 발견하게 된다.⁴⁷⁾

마.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주 언급한다.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는 갈 3 장 8 절에 인용된 창세기 12 장 3 절에 근거한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갈 3:8). 그러나 이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나라에 이방인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 54 장 1-10 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주신 언약은 다시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처럼 멸하지 않는 ‘자비와 화평의 언약’이다. 사 55 장 3 절은 이것을 영혼이 살게 되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라고 부른다.

바. 새 예루살렘

사 54 장 1 절에서 이미 이사야는 창세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잉태하지 못한 황폐한 여자여”(στεῖρα ἡ οὐ τίκτουςα)는 창 16 장 1 절의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Σαρα δὲ ἡ γυνὴ Ἀβραμ οὐκ ἔτικτεν αὐτῷ)를 연상시킨다. 또한, ‘홀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결혼하지 않은, 따라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표현한 것이며, 이와 대조되는 ‘남편 있는 여자’라는 표현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여자를 뜻한다.⁴⁸⁾ 그러니까 마치 사라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약속과 기적을 통해 생명을 낳았듯이, ‘불임의 여인’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생명을 낳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 54 장 11 절에 다양한 보석으로 성을 꾸미는 모습은 ‘불임의 여인’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진다(사 65:17-19). 이사야서는 새 예루살렘의 잉태가 새창조(new creation)와 관련된 사건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사 54 장 1 절은 회복과 출산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재창조(re-creation)의 기쁨을 예고하는 극적인 장면이다.

위의 여섯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사 54 장 1 절을 인용한 명확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구속역사의 약속과 성취의 틀 안에서, 바울은 사 54 장 1 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랜 포로기 가운데 있던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된 새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른 새 예루살렘과 그 어머니

46) 바울의 이사야 사용에 관하여는 J. Ross Wagner, “Isaiah in Romans and Galatians,” in *Isaiah in the New Testament*, eds. Steve Moyise and Maarten J. J. Menken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117-32를 보라.

47) Wagner, “Isaiah in Romans and Galatians,” 130-31.

48) Elitzur A. Bar-Asher Siegal and Michal Bar-Asher Siegal, “The Hebrew-Based Traditions in Galatians 4:21-31,” *Early Christianity* (2019): 404-31.

의 출산이 새로운 시대, 즉,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종말론적인 시대의 시작임을 선언한 것이다.⁴⁹⁾

4. 두 아들, 두 언약,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제 바울의 알레고리를 해석해보자. 갈 4장 21-31 절에 나타난 바울의 알레고리를 보면, 하갈은 세 가지 ‘다른 대상’으로 표현된다. 여종인 하갈은 (1) ‘한 언약’, (2) ‘시내산’, (3)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하갈 쪽 알레고리는 명시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반면, 사라에 해당하는 알레고리는 독자가 암묵적으로 추론하도록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사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시내산처럼 언약의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 한 여인은 자유인으로 불리는데, 역시 동일하게 세 가지 ‘다른 대상’으로 표현된다. (1) ‘다른 한 언약’, (2) ‘우리 어머니’, (3)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하갈	사라
아들(이스마엘)	아들(이삭)
여종(παιδισκη)	자유자(ἐλευθέρα)
육체를 통해 태어남(κατὰ σάρκα)	약속을 통해 태어남(δι’ ἐπαγγελίας)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언약	다른 한 언약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업을 받을 수 없음	유업을 받게 됨

바울의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가? 다시 말해, 두 언약은 무엇인가? 또한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왜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는가? 바울이 독자들이 자연스레 추론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두 아들’, ‘두 언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가. 두 아들(δύο υἱοὶ)

전통적으로 두 아들은 유대인 공동체와 교회로 해석되어 왔다.⁵⁰⁾ 예를 들어, 잡스는 하갈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한 유대인들로 해석한다.⁵¹⁾ 그러나 해당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이 지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본 단락이 시작되는 갈 4장 21 절을 보면, 바울은 이 알레고리를 제시하는 청중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커다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 상황 속에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

49) Willitts, “Isa 54,1 in Gal 4,24b-27,” 194. 스타링(Daivid Starling)은 윌리츠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서도, 사 54장 1절의 인용된 구속사적 맥락은 윌리츠가 주장하듯 이사야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시온의 이야기라기보다 성경 전체의 더 넓은 구속사적 흐름에서 이해될 것에 대해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David I. Starling, *Not My People: Gentiles As Exiles in Pauline Hermeneutics*, BZNW 184 (Berlin: De Gruyter, 2011)를 보라.

50) Betz, *Galatians*, 243; Hays, *Echoes of Scriptures*, 114-15; Davis, “Allegorically Speaking,” 169-70.

51) Jobes, “Jerusalem, Our Mother,” 317.

자 하는 자들’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자 하는 자들’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⁵²⁾ 그렇다면, 이 대상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최근의 논의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하갈의 아들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중 할례를 원하고 율법을 지키는 원하는 자들과 이를 부추기는 자들’로 이해하고, 사라의 아들들은 ‘동일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중 할례나 율법 등 유대인으로의 개종 없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 이해한다.⁵³⁾ 이러한 해석은 당시 갈라디아 공동체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준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읽기를 지지한다(갈 4:21). 창세기 문맥에서는 이 두 아들은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시내산, 즉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내산의 율법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대비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써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그런데 이사야서의 문맥에 따르면,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가? 따라서 두 아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두 여인, 즉 두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두 언약(δύο διαθήκαι)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바울은 갈 4장 22 절에 창 16장 15 절로 시작되는 ‘사라-하갈 내려티브’를 인용한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한 아들은 자유인에게서 태어났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두 여인은 두 언약(δύο διαθήκαι)이다. 이 두 언약의 차이의 핵심은 ‘종됨’과 ‘자유함’이다. ‘종됨’은 율법에 의한 종됨이며, ‘자유함’은 율법과 무관한 약속의 성취로써의 자유이다. 바울은 24 절에 그 여종인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났으며(γεννώσα), 종살이로 이끈다고(εἰς δουλείαν) 말한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하갈은 시내산 율법과 관련이 있다. ‘율법’(토라)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인식은 유대 문헌에서 쉽게 발견된다.⁵⁵⁾ 그런데 바울은 이와 달리 이 율법이 종살이로 이끈다고 말하며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울은 또한 25 절에 이 시내산-하갈이라는 어머니는 아라비아에 있으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vῦν Ἱερουσαλήμ)과 상응한다고(συστοιχεῖ) 말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시내산-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학자들은 하갈(ḡḡ)과 하그라(ḡḡ

52) Eastman,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311, 318-19; Hunn, “The Hagar-Sarah Allegory,” 126.

53) Martyn, *Galatians*, 449-57; Matthew Thiessen, *Paul and the Gentile Probl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87-91. Caroline E. Johnson Hodge, *If Sons, Then Heirs: A Study of Kinship and Ethnicity in the Letters of Pa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91-92.

54) Fisch, *Written for Us*, 96.

55) 예를 들면, 랍비식 미드라쉬인 Exodus Rabbah 30, 5 혹은 팔레스타인 탈무드 y. Meg. 4:1 74를 보라.

αγα)의 언어유희(word play)를 지적하며,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살았던 지역이 ‘하그라’라는 지명의 아라비아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⁵⁶⁾ 그러나 한편, 이사야서의 문맥을 바탕으로 아라비아를 ‘광야’ 혹은 ‘포로됨’으로 해석해본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 지금 있는 예루살렘까지 여전히 포로된 상태,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디마테이는 비슷한 맥락에서 하갈의 자녀들을 “시내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보았다.⁵⁷⁾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아마도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 및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까지도 언급하며,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⁵⁸⁾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은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만은 언급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을 받지 않음으로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 또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갈이 시내산 언약과 이때 주어진 율법으로 연결되는 것은 꽤나 분명해 보이는 한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라, 즉 ‘우리의 어머니’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한 언약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시내산 언약과 반대되는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석해왔다.⁵⁹⁾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 언약이 더 오래되고, 영원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⁶⁰⁾ 이러한 해석은 갈 3장 15-17 절의 바울의 진술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바울은 언약을 종종 약속 또는 유언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⁶¹⁾ 특히 16 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손들’(τοῖς σπέρμασιν)이 아닌 ‘너의 자손’(τῷ σπέρματί σου)’, 즉 한 개인인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또한 17 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서의 언약이 율법보다 선행하며, 19 절에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ἄχρις οὗ ἔλθῃ τὸ σπέρμα) 유효함을 강조한다.⁶²⁾ 다시 말해, 바울이 보기에, 하갈이라는 언약은 ‘일시적’이며 ‘임시적’이다. 바울은 지금 율법, 즉 할레나 다른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나온 자녀들이(οἱ ἐκ πίστεως)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울이 사라와 아브라함 언약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 54 장 1 절을 통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즉, 바울은 그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바울의 해석은 창세기 본문을 뒤집어서 유대인들을 하갈의 자녀로, 이방인들을 ‘참된’ 혹은 ‘영적’ 사라의 자녀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

56) Martin McNamara, “τὸ δὲ Ἀγὰρ Σινᾶ ὅρος ἐστὶν ἐν τῇ Ἀραβίᾳ (Gal. 4, 25a): Paul and Petra,” MS 2 (1978): 24-41; Steinhäuser, “Gal 4,25a,” 234-40; Cosgrove, “The Law Has Given Sarah No Children,” 228; Longenecker, *Galatians*, 211-12.

57)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13.

58) Fisch, *Written for Us*, 97.

59) Betz, *Galatians*, 243; Longenecker, *Galatians*, 211. 예를 들면, 고전 11:25; 고후 3:6.

60)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76; Hays, *Echoes of Scriptures*, 114; idem, *The Conversion of the Imagination: Paul as Interpreter of Israel’s Scrip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111-18; Emerson, “Arbitrary Allegory, Typical Typology, or Intertextual Interpretation?” 18; Fisch, *Written for Us*, 94.

61) 언약을 유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논증에 대해 Kyu Seop Kim, “The Concept of Δι’ αἰῶν in Galatians 3:15-18,” *JBL* 143.2 (2024): 353-72를 보라.

62) 바울의 이 표현에 관하여 바울이 창 49장 10절을 전유하여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를 연결시키는 논증에 대해 J. Thomas Hewitt, “Ancient Messiah Discourse and Paul’s Expression ἄχρις οὗ ἔλθῃ τὸ σπέρμα in Galatians 3.19,” *NTS* 65.3 (2019): 398-411을 보라.

니다. 오히려, 사라로 대변되는 시온적 언약(평화의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한 성령을 통해 세우신 언약의 알레고리로 이해된다. 반면, 하갈로 대변되는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이며 혈통적 자손들이 태어난 언약의 알레고리로 이해된다. 즉, 사라에게 주어진 언약, 단순히 이전의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바로 이 새 언약은 이사야의 약속에 따라 ‘육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닌 ‘약속과 성령’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다.⁶³⁾

그러므로 바울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염두에 둔 관점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것이라기 보다, 그들이 ‘율법과 육체’에 속해 있는가 ‘약속과 성령’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갈 3장 21 절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거나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 즉, 성령은 율법이 아닌, 약속과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믿음으로만 주어지며, 이 영적 탄생이야말로 사 54 장 1 절의 말씀의 성취이다. 따라서 율법의 문제는 그것의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생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윌리엄스(Sam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곧 의롭다 함을 받은 신분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a life-transforming power), 즉 성령의 능력의 결과이다. ... 사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경험과 의롭다 함의 신분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은 서로를 의미를 내포한다.”⁶⁴⁾ 보아키(Andrew Boakye) 역시 율법이 주지 못하는 생명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⁶⁵⁾ 보아키에 따르면,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됨은,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 다시 살림의 사건’(eschatological revivification event)이다.⁶⁶⁾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다.⁶⁷⁾ 그 최종적인 성취는 ‘불임이었던 여인’이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종류의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된 그리스도의 새창조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아들과 두 여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된다. 두 아들은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여종의 아들들은 율법에 거하고자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즉 성령이 없거나 그것을 소유하고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삭으로 대변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은 성령을 소유하여 율법에서 자유하여, 율법과 상관 없이 유업을 받는 자들을 뜻한다.⁶⁸⁾ 또한 두 여인은 각각 시내산을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는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시온의 언약, 즉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다.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ἡ ἄνω ἱερουσαλήμ)

63)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19-20.

64) Sam K. Williams, “Justification and the Spirit in Galatians,” *JSNT* 29 (1987): 97.

65) Andrew K. Boakye, *Death and Life: Resurrection, Restoration, and Rectification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Eugene, OR: Pickwick, 2017), 120-58.

66) Boakye, *Death and Life: Resurrection*, 215.

67) Francis Watson,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New York: T&T Clark, 2004), 192.

68) 갈라디아서의 문맥 안에는 바울은 인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류 가운데 이해될 수 있다. (1) 유대인, (2) 이방인, (3) 성령을 소유한 유대인, (4) 성령을 소유한 이방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Thiessen, *Paul and the Gentile Problem*, 120, 148-54를 참조하라.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의 탄생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세례와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를 두고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영미는 “천상의 예루살렘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시온전승과 묵시적 예루살렘 상징화를 도입한 것”이며, 예루살렘이 “묵시적 용어”라는 점을 옳게 지적한다.⁶⁹⁾ 즉,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묵시적인 배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틴(J. Martyn)이 ‘선명한 묵시론적인 대조’(distinctly apocalyptic contrast)라고 부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드 부어(Martinus de Boer)는 전자는 옛 시대의 실재(reality)이며, 후자는 새 시대의 실재라고 보았다.⁷⁰⁾ 바울과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두 현실 사이에서 현재적인 ‘묵시적 투쟁’(an apocalyptic struggle)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드 부어에 따르면, 묵시라는 것은 두 세대, 즉 이 세대(this age)와 오는 세대(the age to come)의 시간적 개념과, 두 권세에 대한 영역, 즉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 악의 세력이 있는 영역과 미래에 하늘로부터 올 의와 생명과 평화의 영역이다.⁷¹⁾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이중적인 묵시론적 이원론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를 심판과 승리의 성격은 (1) 우주적이며(cosmic), (2) 하나님 자신의 신적 행위가 드러나며(an act of God), (3) 모든 것을 올바르게 교정하시며(rectifying), (4) 마지막이며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이라는 면에서 종말론적이다(eschatological).⁷²⁾ 그러나 드 부어는 이런 ‘두 시대’라는 묵시론적 맥락 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⁷³⁾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재하게 된 교회,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선용은 이 난해한 표현을 “신자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존재 자체와 그분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⁷⁴⁾ 그렇다면, 드 부어와 김선용이 본 것처럼 ‘위에 있는’이란 말은 단지 비유와 상징일 뿐인가?

드 부어와 김선용의 해석은 바울의 묵시론적 인식론(apocalyptic epistemology)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바울은 이미 다른 서신에서 하늘의 도성, 즉 예루살렘을 실재(reality)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재하신다고 말한다(롬 8:34; 엡 1:20-21; 골 3:1). 바울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바울 자신은 그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고 언급한다(빌 3:20-21).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실재적인(realistic) 사건으로 본다(살전 4:13-18). 이러한 바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말한 ‘위의 예루살렘’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번(Brendan Byrne)은 ‘위에 있는’(ἄνω)이라는 형용사구는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새 창조의 공동체에 관한 초월적 기원”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런 점에서 단순히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⁷⁵⁾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26 절 하반절의 ‘우리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리의’(ἡμῶν)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가

69) 이영미, “바울의 구약전승의 알레고리화()와 상황적 적용,” 119-20.

70)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77.

71)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73.

72)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74.

73)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380.

74) 김선용, “[교리의 더께를 걷어낸 갈라디아서 읽기 05] 자기 정체성 다시 깨닫기: 노예가 아니라 자녀!,” 『기독교사상』 736 (2020): 136.

75) Byrne, “Jerusalems Above and Below,” 227.

리키는 반면, 그들의 ‘어머니’로 언급된 예루살렘은 하늘의 실재(a heavenly reality)이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새 언약, 곧 부활하신 주께서 거하시는 현재의 처소이며,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근원지를 의미한다.”⁷⁶⁾ 번이 옳게 지적한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 지어질 ‘새 예루살렘’은 땅과 육체에 속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다른 ‘영적이나 실재인 예루살렘’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새 창조를 사 54 장 1 절의 출산으로 나타내고자 했으며, 갈라디아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령을 통해 태어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다.

5. 맺음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울은 갈 4 장 21-31 절에서 이사야가 ‘아브라함-사라’ 이야기를 알레고리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사라-하갈’ 내러티브를 이사야의 렌즈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⁷⁷⁾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율법 아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反)복음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하갈-사라’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하갈-사라’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은 이사야서의 예언과 성취의 빛 아래, 종말론적인 틀 안에서 온전히 이해된다.⁷⁸⁾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하갈’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을 따라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에, 여전히 종노릇하며 유업을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반면, ‘사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따라 ‘약속’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 않고,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해 태어났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게 될 자들이다. 바울은 이러한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사 54 장 1 절을 인용하며,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출산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창조는 이방인의 편입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세례를 통해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실재(reality)이다(갈 6:15; 고후 5:17). 바울의 묵시론적인 인식론 안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태어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는 진정한 실재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우리의 어머니’에게 속해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새 창조(καινή κτίσις) 안으로 들어갔으나(갈 6:15), 여전히 의의 소망(ἐλπίδα δικαιοσύνης)을 기다리는 중이다(갈 5:5).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알레고리가 순전히 알레고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이며 묵시론적임(apocalyptic)을 보여준다.

76) Byrne, “Jerusalems Above and Below,” 227.

77) 베이츠(Matthew Bates)의 견해에 동의하며, 바울의 알레고리(allegory)는 단지 “바울이 본문과 현재 상황 사이에서 발견한 몇 가지 유사점(모방점)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 표현(trope)”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Matthew W. Bates, *The Hermeneutics of the Apostolic Proclamation: The Center of Paul's Method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Waco: Baylor University, 2012), 150.

78) Di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117-18.

[참고문헌]

- 김선용. “[교리의 더께를 걷어낸 갈라디아서 읽기 05] 자기 정체성 다시 깨닫기: 노예가 아니라 자녀!” 『기독교사상』 736 (2020): 129-42.
-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 (2014), 5-40.
- 이영미. “바울의 구약전승의 알레고리화()와 상황적 적용: 갈라디아서 4:21-31 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 (2014), 105-34.
- Bachmann, Michael. “Die andere Frau: Synchrone and diachrone Beobachtungen zu Gal 4,21-5,1.” *Judaica* 54 (1998): 144-64.
- Bar-Asher Siegal, Elitzur A. and Michal Bar-Asher Siegal. “The Hebrew-Based Traditions in Galatians 4:21-31.” *Early Christianity* (2019): 404-31.
- Barrett, C. K. “The Allegory of Abraham, Sarah, and Hagar in the Argument of Galatians.” Pages 154-70 in *Essays on Pau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 Bates, Matthew W. *The Hermeneutics of the Apostolic Proclamation: The Center of Paul's Method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2012.
- Betz, Hans D. *Galatians: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Churches in Galatia*.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
- Blessing, Kamila Abrahamova. “The Background of the Barren Woman Motif in Galatians 4:27.” PhD diss. Duke University, 1996.
- Boakye, Andrew K. *Death and Life: Resurrection, Restoration, and Rectification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Eugene, OR: Pickwick, 2017.
- Boyarín, Daniel. “Dorshei Rashumot Amru,” *Beer-Sheva* 3 (1988): 23-35.
- Brawley, Robert L. “Con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the Hendiadic Relationship of Promise and Law in Galatians.” *ZNW* 93 (2002): 99-119.
- Bruce, F. F. “Abraham Had Two Sons: A Study in Pauline Hermeneutics.” Pages 71-84 in *New Testament Studies: Essays in Honor of Ray Summers in His Sixty-Fifth Year*. Edited by Huber L Drumwright and Curtis Vaughan. Waco, TX: Baylor University, 1975.
- Burton, Ernest de Wit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ICC. Edinburgh: T&T Clark, 1921.
- Byrne, Brendan. “Jerusalems Above and Below: A Critique of J. L. Martyn's Interpretation of the Hagar-Sarah Allegory in Gal 4.21-5.1.” *NTS* 60 (2014): 215-31.
- Callaway, Mary. *Sing, O Barren One: A Study in Comparative Midrash*. SBLDS 91. Atlanta: Scholars, 1986.
- Chernick, Michael. “Internal Restraints on Gezerah Shawah's Application.” *JQR* 80.3 (1990): 253-82.
- Childs, Brevard 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 Cosgrove, Charles H. "The Law Has Given Sarah No Children (Gal. 4:21-30)." *NovT* 29 (1987): 219-35.
- De Boer, Martinus C.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NTS* 50 (2004): 370-89.
- DiMattei, Steven.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Gal 4.21-31) in Light of First Century Hellenistic Rhetoric and Jewish Hermeneutics." *NTS* 52 (2006): 102-22.
- Eastman, Susan G.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JSNT* 28 (2006): 309-36.
- Elliott, Susan M. "Choose Your Mother, Choose Your Master: Galatians 4:21-5:1 in the Shadow of the Anatolian Mother of the Gods." *JBL* 118 (1999): 661-83.
- Emerson, Matthew Y. "Arbitrary Allegory, Typical Typology, or Intertextual Interpretation?" *BTB* 43 (2013): 14-22.
- Fisch, Yael. *Written for Us: Paul'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the History of Midrash*. JSJSup 202. Leiden: Brill, 2022.
- Harmon, Mathew S. *She Must and Shall Go Free*. BZNW 168. New York: de Gruyter, 2010.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9.
- *The Conversion of the Imagination: Paul as Interpreter of Israel's Scrip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Hewitt, J. Thomas. "Ancient Messiah Discourse and Paul's Expression ἄχρις οὗ ἔλθῃ τὸ σπέρμα in Galatians 3.19." *NTS* 65.3 (2019): 398-411.
- Hunn, Debbie "The Hagar-Sarah Allegory: Two Covenants, Two Destinies." *Biblica* 100 (2019): 117-34.
- Jobes, Karen H. "Jerusalem, Our Mother: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WTJ* 55 (1993): 299-320.
- Johnson Hodge, Caroline E. *If Sons, Then Heirs: A Study of Kinship and Ethnicity in the Letters of Pa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Kim, Kyu Seop. "The Concept of Διαθήκη in Galatians 3:15-18." *JBL* 143.2 (2024): 353-72.
- Lauterbach, Jacob Z. "The Ancient Jewish Allegorists in Talmud and Midrash-Part 1." *JQR* 1.3 (1911): 291-333.
- Licari, François-Xavier. *An Introduction to Jewish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WBC 41. Dallas: Word, 1990.
- MacQueen, John. *Allegory*. The Critical Idiom 14. London: Methuen, 1970.
- Martyn, J. Louis.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A. New York: Doubleday, 1997.

- Martyn, J. Louis. "The Covenants of Hagar and Sarah: Two Covenants and Two Gentile Missions." Pages 191-208 in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1997.
- Mattei, Steven D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 (Gal 4.21-31) in Light of First Century Hellenistic Rhetoric and Jewish Hermeneutics." *NTS* 52 (2006): 102-22.
-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6.
- McNamara, Martin. "τὸ δὲ Ἀγὰρ Σινᾶ ὅρος ἐστὶν ἐν τῇ Ἀραβίᾳ (Gal. 4, 25a): Paul and Petra." *MS* 2 (1978): 24-41.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Schiffman, Lawrence H. "The Early History of Public Reading of the Torah." Pages 44-56 in *Jews, Christians, and Polytheists in the Ancient Synagogue*. Edited by Steven Fine. New York: Routledge, 1999.
- Starling, David I. "The Children of the Barren Woman: Galatians 4:27 and the Hermeneutics of Justification." *JSPL* 3 (2013): 93-110.
- *Not My People: Gentiles As Exiles in Pauline Hermeneutics*. BZNW 184. Berlin: De Gruyter, 2011.
- Steinhauser, Michael G. "Gal 4,25a: Evidence of Targumic Tradition in Gal 4,21-31?" *Biblica* 70 (1989): 234-240.
- Thiessen, Matthew. *Paul and the Gentile Probl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Trick, Bradley R. *Abrahamic Descent, Testamentary Adoption, and the Law in Galatians: Differentiating Abraham's Sons, Seed, and Children of Promise*. NovTSup 169. Leiden: Brill, 2016.
- Wagner, J. Ross. "Isaiah in Romans and Galatians." Pages 117-32 in *Isaiah in the New Testament*. Edited by Steve Moyise and Maarten J. J. Menken,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 Watson, Francis.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New York: T&T Clark, 2004.
- Wenkel, David H. "Gezerah Shawah as Analogy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TB* 37.2 (2007): 62-68.
- Williams, Sam K. "Justification and the Spirit in Galatians." *JSNT* 29 (1987): 91-100.
- Willitts, Joel. "Isa 54,1 in Gal 4,24b-27: Reading Genesis in Light of Isaiah." *ZNW* 96 (2005): 188-210.

[Abstract]

**Paul's Allegory That Is Not Merely Allegorical:
Revisiting Paul's Use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Manse Ri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Ph.D.)

The passage in Galatians 4:21-31, the so-called “Hagar and Sarah allegory,”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thorniest texts among Pauline scholars. In particula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has remained a hermeneutical enigma for many exegets. However, recent interpreters have come to view the allegory in this passage as evidence that Paul's use of Isaiah 54:1 is not only contextually appropriate but also serves a crucial function in elucidating his argument. Building upon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seek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what “allegory” is for Paul, of how he interpreted Isaiah 54:1 in this context, and of how Paul conveyed his message through “allegory”. On this basis, I argue in this paper that Paul's allegory is not merely allegorical but rather redemptive-historical and apocalyptic in character. As a result,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reader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Paul's conception of the earliest Christ-followers and his eschatological theology.

Key Words

Paul, Allegory, two covenants (δύο διαθήκαι), Gal 4:21-31, Isa 54:1